

일본, 베네주엘라 원유 도입 본격화

Mitsui · Marubeni 고급 경질유 200만배럴 수입 ... 중동 의존도 탈피

일본이 에너지원 수입 다변화 방침에 따라 종합상사들을 통해 베네주엘라 원유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의 종합상사인 Mitsui상사와 Marubeni상사는 2월 베네주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와 체결한 35억달러 수준의 15년 계약의 일환으로 200만배럴의 고급 경질유를 도입한다고 8월6일 발표했다. 원유는 베네주엘라에서 8월 중순 선적돼 10월초 일본 정유기업들에 인도될 예정이다.

원유 대금은 PDVSA가 계획과 관련해 일본에 진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대체되며 계약은 국영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지원으로 체결됐다.

일본과 베네주엘라는 계약에 따라 15년간 원유 및 정유제품을 일본이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해온 일본이 베네주엘라 원유를 본격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08>